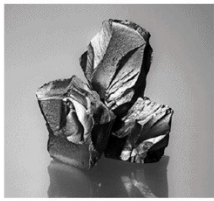


# 또 오른 폴리실리콘값에 기업들 희비교차

中 전력난으로 공급부족 지속  
주간가 kg당 32.6달러 13.3%↑  
국내 유일 생산업체 OCI 호실적  
LG전자 등 태양광 부문 반등주춤



달리선을 돌파했다.

중국 전력난으로 주춤했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사진) 가격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었다. 국내 기업 중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는 수혜를 입게 됐지만, 대부분 태양광 업체들이 분포한 셀·모듈 등 다운스트림 산업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4 태양광 산업 시장조사업체 PV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29일 기준 고순도(9N/9N+) 폴리실리콘의 주간 평균 가격은 kg당 32.6달러로 나타났다. 직전주 대비 13.3% 급등하며 kg당 30

가 부담이 차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실제 7~8월 폴리실리콘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며 가격이 안정화될 기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전력난으로 폴리실리콘 값은 또 한번 치솟았다. 폴리실리콘 생산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이 부족해져 일부 공장 생산이 지연된 것이다. 전력난에 따른 폴리실리콘 공급부족 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백영진 KB금융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한적인 신증설로 인해 폴리실리콘 현물가격 강보합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여기에 전력난 이슈로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감소하며 구조적인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태양광 업계내에서도 희

비가 갈리고 있다. 국내 유일인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는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폴리실리콘을 기초재료로 태양광 셀·모듈을 제조하는 다운스트림 산업에 속하는 한화솔루션·LG전자·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은 태양광 부문에서 실적을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  
원재료 값 상승에 태양광 모듈 가격 역시 제품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직전주 대비 약 4.5% 전후의 상승세를 보였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다운스트림 제품 가격의 상승은 폴리실리콘·에이퍼 등 업스트림 제품 상승분을 반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다만 다운스트림 제품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이 나타나기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dt.co.kr

# ‘고객 최우선’ LG의 소통행보

전장사업부문 링크드인 개설  
“차별화된 가치 소개·소통 창구”

LG전자가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접촉면을 넓히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4일 LG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전장사업부문의 고객사들인 글로벌 완성차업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올해 초 전장사업부문의 링크드인 브랜드 페이지를 개설하고 여러 온라인 채널과 연계하여 맞춤형 영상과 메시지를 제작해 올리고 있다. 지난 3월 105주년을 맞은 EMW를 시작으로 포르세(90주년), 폭스바겐(84주년), 포드(118주년), 닷지(95주년), 도요타(84주년), GM(113주년), 혼다(73주년) 등 글로벌 고객사들의 창립기념일을 전했다.  
실제로 완성차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전장업계의 많은 종사자들은 링크드인에서 업계 최신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링크드인 브랜드 페이지를 통해 자사 전장사업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차별화된 가치를 소개하는 등 고객사 및 투자자와 소통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또 글로벌 인재를 수채 사용하는 데도 링크드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외에도 전장사업 협력법인인 엘지마그나 파워트레인인과 지회사 ZKW도 고객사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링크드인 브랜드 페이지를 운영하며 디지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또 LG전자는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 수집 채널을 기존 고객센터 중심에서 온라인, SNS, 고객 커뮤니티 등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고객 가치 실현 프로세스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LG전자는 이런 페인 포인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우수 사례들을 선정한 ‘고객 경험 혁신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는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실적 성장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LG그룹의 경영 행보와도 큰 관련이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 들어 ‘고객 점프’와 ‘미래 준비’를 경영의 가장 큰 가치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보에서 이를 강조하며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구 회장은 지난해 30일에는 30여명의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비대면 화상회의로 ‘사당산 워크숍’을 열고, 내년 이후 고객 가치 기반의 질적 성장을 위한 경영 전략 방안을 논의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 광학 샘플링 시스템 아드반테스트서 공개

TAS700TS 테라헤르츠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인 아드반테스트는 자체 개발 통신 기술과 첨단순전자지원시스템(ADAS)에 쓰이는 “TAS700TS” 테라헤르츠(THz) 광학 샘플링 분석 시스템의 고주파 해상도 옵션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필리미터와 레이더 기술에 필수적인 전파 흡수체와 기판 재료 등의 고주파 특성 평가에서 효율적인 측정 방법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회사의 광학 샘플링 시스템은 펄스전자기장을 활용해 광대역에서 일괄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회사 관계자는 “더 작은 크기의 광학 샘플링 시스템으로 비용과 공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샘플 측정 옵션을 사용해 표면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솔루션은 오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JASIS 2021(도쿄 분석&화학기기 박람회), 같은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MWE 2021(미카로웨이브 워크숍&전시회) 등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

# SK이노 “2023년 연구개발 인력 2배로”

美샌프란시스코서 글로벌 포럼  
“탄소에서 그린” 혁신의 중점”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포럼’에서 회사의 전략과 미래 비전 등을 소개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이 2023년까지 연구개발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4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김준 총괄사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글로벌 포럼’에서 “2023년까지 연구개발 인력 증가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내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사장은 “SK이노베이션이 ‘탄소에서 그린(Carbon to Green)’으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터리, 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기술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훌륭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역량 내재화,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외부와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을 통해 ‘탄소에서 그린’ 전략의 속도와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포럼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올해 글로벌 포럼에는 미국 12개 대학 및 연구소로부터 초청한 석·박사, 친환경 소재·배터리 사업분야 글로벌 기업 재직자 등

핵심 인재들이 참석했다. 김 총괄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도 인재를 확보를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SK그룹 차원에서 운영해온 글로벌 포럼을 SK이노베이션이 주최한 이유는 ‘탄소에서 그린으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영사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글로벌 포럼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지동성 SK은 대표회 회사 출범 이후 첫 행보로 배터리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핵심 인재 영입에 나섰다. 지 대표는 “전반 인재 확보에 기반해 배터리 사업의 밑거름을 통

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업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은 “탄소사업에서 그린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친환경 미래 성장 연구개발 및 차별적 기술 솔루션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원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연구원장은 배터리 기술력을 소개하며 “배터리재활용(Battery Metal Recycle, BMR) 사업 등 SK은의 신규 사업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우수 인재 확보는 필요가 아닌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김위수기자 withsu@

# 현대글로비스 친환경 브랜드 ‘에코’ 론칭

수소·전기차·배터리 등 확대

360곳 이상의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가 수소와 전기차(EV) 배터리 등 친환경 신사업 브랜드를 선보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브랜드 ‘에코’(ECHO)를 론칭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소유통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에서 에코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소사업은 물류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에코 로지스틱스’ 또는 ‘에코 스테이션’을, 전기차 배터리는 저장용을 뜻하는 ‘엔더’를 합쳐 ‘에코 스토리지’를 브랜드 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공공관리 전문 기업인 특성을 살려 수소의 생산·저장·운송·공급 등 전 영역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수소유통과 인프라 운영 사업을 지속 확대해 2030년까지 수소충전센터를 5곳으로 늘리고, 전국에 총

360곳 이상의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오세아니아와 중동 등 해외의 그린수소 유통 및 관련 인프라 운영 사업, 국내 그린 수소 수요처 독자 개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린수소 운반은 2024년 건조예정인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2척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물량 확대 시 추가 선박 건조도 검토한다.

이 밖에 액화수소의 저장·운송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글로벌 수소전문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2024년 경 액화수소 생산·유통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수소 공급의무화제도(HPS)에 발맞춰 수소 연료전지발전소 구축사업과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판매 사업 진출도 검토한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실증사업 진행에 이어 V2G(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해 유휴 전력량을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에 대한 실증을 바탕으로 미래전력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우진기자 jw17@

프리미엄 名品 블랙박스 “차눈”

無자본 無보증 無담보

전국 블랙박스 렌탈사업자 모집

Semi Solution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일로 120 영덕동 흥덕U타워 지식산업센터 1내

4년 연속 브랜드대상 1위 “차눈”

신청 문의 1670-5331